|  |  |
| --- | --- |
| **자료배포** | 2025.02.06 |
| **보도요청** | 실적 공시 직후 |
| **문의** | 안종연 주임 T: 02 410 9831장진혁 과장 T: 02 410 0429 남예주 과장 T: 02 410 9089 | Email: pa@hanmi.co.kr |

**제이브이엠, 작년 연매출 1594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

**작년 누적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인 307억원 달성**

**4분기 매출 442억원은 ‘역대 분기 최고’ 기록**

**내수 보다 수출 실적 커지는 추세 뚜렷해져**

**<제이브이엠 2024년 잠정 경영실적>**

**\*단위=억원/연결기준**

|  |  |  |  |
| --- | --- | --- | --- |
| **구분** | 2023년 누적  | **2024년 누적** | **증감** |
| **매출** | 1,571 | **1,594** | **1.5%** |
| **영업이익** | 298 | **307** | **3.0%** |
| **순이익** | 262 | **288** | **9.9%** |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동환, KOSDAQ: 054950)은 2024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94억원, 영업이익 307억원, 순이익 288억원의 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2023년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3.0%, 순이익은 9.9% 성장했다. 2024년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2%, 수출 48%(북미 16%, 유럽 24%, 기타 8%)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간 R&D에는 연결 매출 대비 6.2% 수준인 98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442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91억원, 76억원이었다. 특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북미 27%, 기타 지역 56%) 성장하며 전년 4분기에 이어 또 다시 수출이 내수를 앞서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근소한 우위로 수출이 내수 실적을 앞섰던 2023년 4분기와 달리, 2024년 4분기의 경우 보다 유의미하게 격차를 벌리며 제이브이엠의 해외 시장 확대가 본격화됨을 보여줬다.

제이브이엠은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혁신적 기술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약품 조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로봇팔을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인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MENITH(메니스)’의 성공적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자동 바이알 조제장비 ‘COUNTMATE(카운트메이트)’를 올해 출시하며 해외 매출 볼륨 확대를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MENITH는 2023년부터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기존 조제기 대비 생산성이 3배 이상 향상돼 해외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출시 이후 유럽, 북미, 호주 등 지역으로 수출 채널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COUNTMATE는 약품을 플라스틱병에 담는 바이알 방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은 미국과 캐나다 의약품 시장의 조제 패턴을 분석해 출시된 솔루션으로,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다.

이처럼 제이브이엠은 ATDPS 제품의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MENITH 등 프리미엄 장비 및 COUNTMATE, VIXEN EX, NSP 등 권역별 맞춤 자동 조제 장비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된 후 한미그룹의 전문적 경영 관리 역량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를 통해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는 “고객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과 독보적 기술력이라는 제이브이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넘어 글로벌 수출 볼륨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 의약품 조제 니즈를 충족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끝>**